

지역에서의 장애인 건강 연구와 정책화를 위한 노력

경상국립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영수

차례

1.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연구의 계기
2.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의사소통 지원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조사
4.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기초조사
5. 향후 과제

1.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연구의 계기

[사람속으로] 장애인 권익활동 '삼별초' 남정우 대표

"지체장애1급 딛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 것"

기사입력 : 2018-02-22 22:00:00



남씨는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 대문만 나서면 모든 게 장애물이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이고 억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자립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나오기가 더 힘들다. 국민 약 5%인 250만여 명이 장애인이고 도내에도 약 18만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주변에서 이들을 쉽게 만나기 힘든 이유다”며 “누구나 장애인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이것이 세상에 나와 몸소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2020 여름

경남에서 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치과 리스트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가지고 있는가? 만들어달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기관 의료기관 편의시설 내역 ('21.4.5.)

기관명	방문 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진료실 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주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대기실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 설치 여부	
			설치여부	설치대수	자동문설치여부	높이 차이 제거 여부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 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모니터
고려정형외과의원	미참여	1	x		x	x	o	x	x	x	x	x	x
사람우리들의원	미참여	2	o	2	x	o	o	o	x	x	x	x	x
신가정의학과의원	미참여	2	x		x	o	x	x	o	x	o	x	x
정안과의원	미참여	1	x		x	x	o	x	o	o	o	x	x
훈의원	미참여	2	x		o	x	x	x	x	x	x	x	x
친절한재활의학과의원	미참여	2	x		x	x	x	x	x	x	x	x	x
통영연합의원	방문진료	2	o	1	o	o	x	o	o	o	o	x	x
행복한가정의원	미참여	2	o	1	x	x	x	x	x	x	x	x	x
홍익재활병원	미참여	1	o	4	o	o	o	x	o	o	o	x	x
조은세상의원	미참여	2	x		x	x	x	x	x	x	x	x	x
김지웅내과의원	미참여	2	x		x	x	x	x	x	x	x	x	x
다솜의원	미참여	2	o	10	o	o	o	o	o	o	o	x	x
창원글로벌안과의원	미참여	3	o	2	o	o	x	o	x	x	x	x	x
열린내과의원	미참여	2	x		x	x	x	x	x	x	x	x	x
웅상이내과의원	미참여	2	x		x	x	x	o	o	o	x	x	x
신등하나의원	방문진료	1	x		o	x	o	x	x	x	x	x	x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기관 11개소 (21.3.4.기준)

	시군구	의료기관명	표시과목	진료시간	비고
3	김해시	신가정의학과의원*	가정의학과	평일 9:30~18:30 토요일 9:3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30~14:00	- 010-5328-9295 - 사업수혜대상자인 장애인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간담회 참여o, 2째주 토요일 제외 가능, 시간 언제든, 온/오프라인 여부는 일정 확인후
7	산청군	신등하나의원* (구 하나제통의원)	일반의	평일 8:00~18:00 토요일 8:00~14: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010-2352-0842 - 왕진사업 시행하지는 1년, 말기암, 치매, 특별한 사유없는 노쇠 환자를 방문하며 1달에 2건 정도. - 장애인주치의제도로 방문한적은 없음 - 지역사회(산청) 자체에 환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청 자체가 없음 - 간담회 참여o, 토요일 오후 날짜, 시간 언제든, 온/오프라인 가능하나 간담회 장소 확인 후 결정
10	창원시	조은세상의원*	일반의	평일 9:00~19:00 토요일 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010-3876-0778 - 코로나 이후에도 2번정도 방문진료 시행했고, 말기암, 수술후 거동 불편한 분 방문함. 말기암환자의 경우 터미널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진료는 불가능했음. - 간담회 참여o, 토요일 오후 날짜, 시간 언제든, 창원에서 하면 오프라인 참석 가능. 호의적
11	통영시	성모의원	일반의	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3:00~14:00	- 의원 전화번호만 - 왕진사업은 시범 첫해부터 시행했음. 대상자는 중증장애인(휠체어 포함), 특수장애인 등이며 주로 심한 욕창, 만성질환 등 이환 상태이며, 퇴근 후 저녁시간 이용하여 4회/주정도 방문함. 현재 케어 대상자는 5-6명정도 됨. 욕창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면 관리할 것도 많고 오래 머물러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1-2명정도만 가능. - 장애인주치의제도 방문관리 설명 드림. 호의적 - 간담회 참여o, 토요일 오후 날짜, 시간 언제든, 온/오프라인은 일정 확인 필요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과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병행 기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회의록

회의일시	2021.10.6(수) 16:00~17:00	부서	공공의료팀	작성자	신남경
참석자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남정우 대표 (공공의료팀) 김영수 책임연구원, 신남경 연구원, 김혜원 연구원				
장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회의실				
주요안건	장애인 건강 협의체 구성 및 향후 장애인 건강 지원 방향 논의				

내용	비고
1. 장애인 건강 협의체 관련 내용 가.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기관 - 7월 29일(목) 개최되었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간담회(창원)에 참석하였던 기관 중심으로 구성 - 노인 쪽에도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시켜서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 유관기관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제안 받음. - 협의체가 구성되고 향후에는 경남에 있는 장애범주별 단체들도 섭외하는 것에 대한 제안 받음. ex)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경상남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등 - 협의체에 도의원 들어오는 것도 제안 받음.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와 긴밀한 소통 구조 필요함.	

☐ 일시 : 2021.12.30.(목) 오후 2시

☐ 장소 :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의실

☐ 논의사항

1. 제3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결과 보고

- 주제 :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2. 2021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장애인 건강 관련 사업 보고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판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 공공병원의 장애인 진료 강화를 위한 병원장 면담

3. 2022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계획

-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및 홍보(계속 과제)
- 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험과 의료인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4.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 내 협의체 구성(안)

가. 목적

- 1) 경상남도 내 장애인 건강과 건강 문제에 대한 공론화
- 2) 지역 내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 3)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검진 및 진료기능 강화
- 4) “경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등 법률속의 건강권 내용 구체화
- 5)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전 민들레 사협 모델) 설립
- 6)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 책무성 강화 촉구

나. 참여주체 : 창원(경남) 지역 내 장애인 단체, 지원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유관기관(복지관, 재가요양기관 등), 보건소, 시도 장애인복지과 등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장애인 현실

-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의료 접근성
- 병원에 가기 위해 하루를 꼬박 써야 하는 상황
- 직접 진료받지 못하고, 보호자들이 대리 처방하는 경우 많음

KBS NEWS

장애인콜택시 직접 불러보니...기다림 '하세월'

입력 2021.08.30 (13:31)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강식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매주 대학병원에 갑니다. 휠체어 타기도 버거운 이 씨는 장애인 콜택시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차가 마음처럼 안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허다합니다. **3시간 가까이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씨는 "오후 4시 반쯤 차를 불렀는데, 콜이 여러 차례 안 잡히다 저녁 7시 10분에야 차량이 왔었다"며 씁쓸하게 털어놨습니다.

The JoongAng

24시간 누워 있는 중증 장애인 “병원 가는 길이 천리길”

중앙선데이 | 입력 2019.04.20 00:21

강원도 춘천시 뇌졸중 환자 최씨(84)의 딸(50)이 유일하게 집밖을 나서 바깥 바람을 쐬 때는 병원 가는 날이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모친 최씨를 모시고 강원대병원까지 가는 길은 5km. 24시간 누워 생활하는 최씨를 모시려면 **사실 앰불런스를 불러야 한다. 비용만 왕복 20만원이다.** 병원비까지 합하면 한 번 병원 외출할 때 30만원이 훌쩍 나간다. 딸은 “비용이 들어도 그나마 환자를 이송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 실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건강특성]

높은 우울감 경험율

노인 장애인 18.5%

전체 장애인 18.2%

비장애인 10.5%

미충족 의료 경험 : 크게 증가

2017년도 17.0%, 2020년도 32.4%

→ 의료기관까지의 이동(29.8%)

→ 병원에서 오랜 기다림(4.3%)

[사회적특성, 외출빈도] 큰폭 감소

거의 매일 70.1%(2017)→45.4%(2020)

노인 35.1%

전혀외출않음 4.5%(2017)→8.8%(2020)

노인 10.3%

[복지서비스 수요]

전 연령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의료보장” 요구가 높음

(27.9%vs32.8%)

[종합]

높은 우울감 경험, 미충족 의료가 장애인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심각.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 예약시스템 이용, 외출감소가 이에 영향을 줌.

→ 반면에 의료보장 요구는 장애인에게서 더 높음

→ 대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대두

제2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일시 | 2020. 11. 19. (목) 14:00 ~ 17:30

장소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YouTube 채널

방법 | ① 온라인 사전 등록 : 링크 (asq.or/GNSymposium) 또는 우측상단 QR코드 접속

* 포털 사이트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을 검색해주세요

② 사전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참석 링크 안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사업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로 '제2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등록 및 개회

14:00~14:20	인사말 축 사	• 윤철호 병원장 (경상대학교병원)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윤태호 국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정열 위원장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	---

▶ 주제발표

14:20~14:50	공공보건 위기 시 취약계층 건강보호와 지방정부의 역할	• 김명희 센터장 (시민건강연구소)
14:50~15:10	코로나19 유행과 노인건강	• 장숙량 교수 (중앙대학교)
15:10~15:30	코로나19 유행과 장애인건강 - 장애인 방문 진료 경험을 중심으로	• 홍종원 대표원장 (건강의집 의원)
15:30~15:50	코로나19 유행과 여성건강 - 판데믹 유행 시기에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 김세롬 상임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15:50~16:00	휴식	

▶ 패널토의 (주장: 장영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6:00~16:40	패널토의 코로나19에서 경상남도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현재 상황 진단 및 향후 전망	• 강윤식 교수 (경상남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경상대학교) • 강태욱 회장 (경해여성회) • 신용일 교수 (경상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부산대학교) • 박보현 교수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16:40~17:30	전체 토론(참여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및 상호 토론) 및 폐회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가 협력 분야 : 재활, 장애인 건강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50'	기조강연	장애인 건강과 공공의료 김창엽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	주제발표	경상남도 장애인 구강건강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승근 연구원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	주제발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박지영 원장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원
10'		휴식

(좌장) 김진기 도의원 | 경상남도의회

50'	패널토의	이선기 과 장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손성애 센터장 부산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용일 센터장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남정우 대 표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김록범 교 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서은경 센터장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	---

경남 공공의료 나아갈 방향은?

남석형·이창우 기자 (nam@idomin.com) |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댓글 0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토론회
권역별 통합 벨트 구축 점검
장애인 건강 접근권 강화 강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경남도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조건이 무엇인지를 놓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병원·행정뿐 아니라 수요자도 참여해야** = 도민이 경남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2010년 9095억 원 △2015년 1조 72억 원 △2018년 1조 1395억 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어디서든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자 2022년까지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건의료, 사회적 결정요인 고려 필요** = 이날 오후부터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모습은 어때야 하나'라는 화두를 놓고 경남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장애인 분야는 재활분야와 함께, 오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필수 협력영역이 된다.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보건·의료 범위 밖에서 결정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애인 건강 접근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현재 사회구조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빈곤은 물론,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한 번 다녀갔다고 해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악화한다. 애초 병원을 왕래할 교통비 부담도 감당하기 어렵다.
- 일선 병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보건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병원까지 온다고 해도 대부분 2층 이상이라 이용이 불편하고, 원내 검진장비들은 여러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 더욱이 신체·정신 등 중층 장애와 각종 질병이 겹친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그에 맞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훈련된 의료진이 대단히 부족하다. 특히, 같은 수가를 받을 때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 하는 경제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김 교수는 장애인들이 주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문화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기획·시행·평가하는 전 과정에 장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인 병원의 시설, 의료진 교육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등도 이런 맥락에서 보완될 수 있다.
- 김 교수는 "파편화된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산 확보·성과 평가가 쉬운 등 장점은 있지만, 사회경제 여건과 문화적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니 점점 주변화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라고 경계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2022년 1회 1호 안건
- 경상남도 공공병원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경남도, 필수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본격 시동

필수보건의료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자체완결적 의료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작성 2022년 02월 23일 조회 43



제1차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회의 자료

경상남도는 23일 자체 완결적 의료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간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의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온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방향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자체, 각 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의료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26명이 참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책임성 제고와 일차 의료 돌봄 및 필수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공공병원의 장애인 건강에 대한 책무성 강조 ▲2021년 4개 책임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 결과공유 ▲ 2022년 공공의료사업계획 심의 ▲정부합동 평가 신설지표로 추가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2022년 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및 개선사항 등을 제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간 경남도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및 사무국 운영으로 안정적인 공공의료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서부권 공공병원 설립과 통영·거창권 적십자병원 2개소 이전·신축 추진으로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 범위를 취약계층 지원에서 퇴원환자 사후관리까지 확장하며 일반 도민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경상남도 공공병원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현황 및 필요성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21)에서 의료인력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문제가 제기됨.

⇒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 필요**

’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20년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 취약 특성으로 ‘의사소통제약’이 주요 문제로 제기됨.

⇒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필요**

’21년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장애인 건강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됨

⇒ **공공병원의 장애인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 필요**

「’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장애인 건강에 공공의료에서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됨.

경상남도 공공병원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제안

[단기 과제]

① 의료인력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지역 내 장애당사자 강사를 초빙하여 실효적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②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판(AAC) 공공병원 보급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예방 매뉴얼로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제작.
도내 공공병원에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 필요

[중·장기 과제]

③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 도내 장애친화건강검진 공공병원은 2개소(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임.

※ 도내 전체 장애친화건강검진 기관 4개소

✧ 경상남도 책임의료기관 전체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운영

[참고] 건강버스 빠짐.



2021년 10월 6일





남정우

October 7, 2021 · 🌐

...

2021.10.06. 15시-16시

○○공공보건의료지원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원이 13명이라 의무대상 사업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센터 책임연구원과의 그간 개인 친분으로 꼭 한 번 교육을 받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기회를 만들어 냈다.

기본 강의 ppt에 의료적 차별 사례들을 첨부하여 강의하였다.

그런데 의외였다.

물론 친분이던 연구원은 의사 출신이지만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의료진인 건 아니다. 하지만 보건관련업을 하고 있다면 알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기본적인 지식도 몰랐다는 게(예를 들어 장애 범주가 15가지라는 것) 깜짝 놀랐다.

다 마치고 소감을 물으니 이런 교육을 난생 처음 들어 보았다니...

<표 2>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받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받는 만성·중기능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받는 만성·중증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받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약받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출처: 보건복지부(2023).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1.8.11.



2022.9.15.

2.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❶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도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과 장애인을 이어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원단이 중간지원조직으로 개입하였을 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❷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가?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총 19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은 11명에 불과하였다 ('21.11월기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점이 별로 없어 참여의 적극성이 낮고 장애인들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아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기관과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협력체계 구축 모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과 등록장애인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장애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❸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장애인 진료 및 경영적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에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연구과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신남경

연구 배경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01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관련 정책적 관심 증대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KBS NEWS

장애인콜택시 직접 불러보니...기다림 '하세월'

입력 2021.08.30 (13:31)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강식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매주 대학병원에 갑니다. 휠체어 타기도 버거운 이 씨는 장애인 콜택시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차가 마음처럼 안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허다합니다. 3시간 가까이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씨는 "오후 4시 반쯤 차를 불렀는데, 콜이 여러 차례 안 잡히다 저녁 7시 10분에야 차량이 왔었다"며 씁쓸하게 털어놨습니다.

The JoongAng

24시간 누워 있는 중증 장애인 "병원 가는 길이 천리길"

중앙선데이 | 입력 2019.04.20 00:21

강원도 춘천시 뇌졸중 환자 최씨(84)의 딸(50)이 유일하게 집밖을 나서 바깥 바람을 쐬 때는 병원 가는 날이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모친 최씨를 모시고 강원대병원까지 가는 길은 5km. 24시간 누워 생활하는 최씨를 모시려면 사실 앰블런스를 불러야 한다. 비용만 왕복 20만원이다. 병원비까지 합하면 한 번 병원 외출할 때 30만원이 훌쩍 나간다. 딸은 "비용이 들어도 그나마 환자를 이송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짧은 의사 대면시간, 의료진의 장애 이해부족 등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 장애인 의료접근성 관련 정책적 관심 증대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국정과제(문재인·윤석열 정부)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과제로 추진
- 법률 및 조례 시행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건강권법)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의료기관의 실질적 참여와 장애인 이용률 저조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02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통한 통합돌봄의 시도
→ 수요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의 대안 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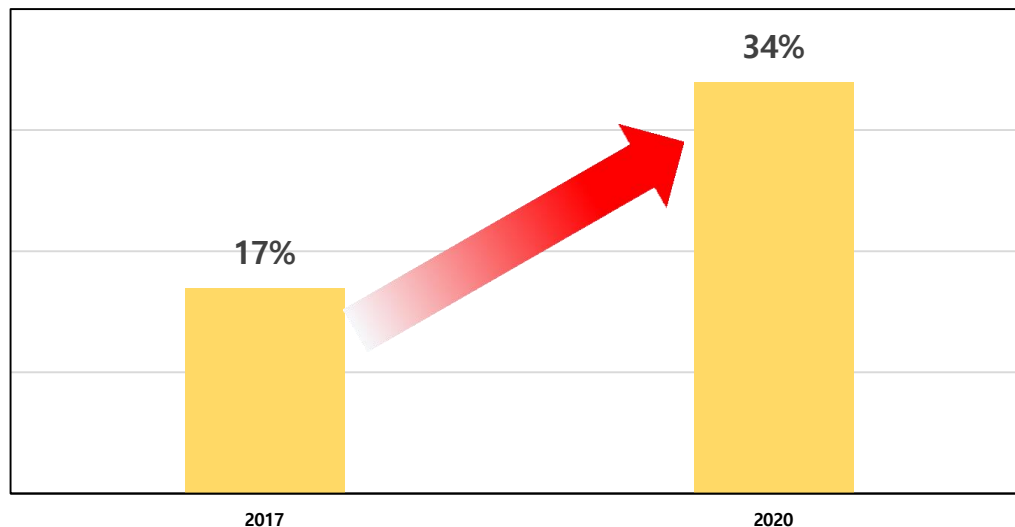
<그림> 서울 건강의집의원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체계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03 코로나19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증가

2020년 장애인 건강 실태조사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연간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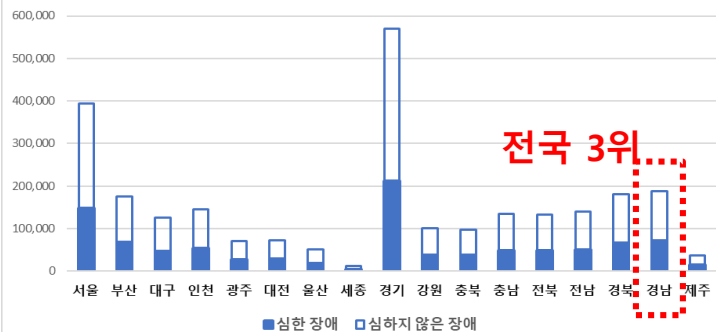


1. 여그 배경 및 피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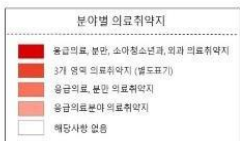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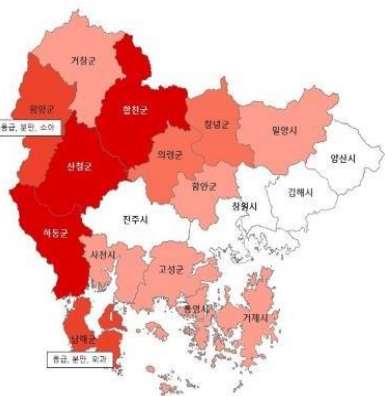
0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시·도별 등록장애인 수 비교(2020년 12월 기준)



전국 3위



- ✓ 경상남도는 전국 3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으며 지역의 특성상 보건·의료자원이 부족, 광범위한 의료취약지 형성
→ 장애인 건강 관련 수요와 재택의료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질 것
-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경상남도의 장애인의 건강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명시화되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고려 필요
- ✓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내 시범사업의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3. 연구 목적



의료기관,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인터뷰를 통한 도
내 시범사업 **현황 및 문제**
점 파악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의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
개입 가능성 탐색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4. 연구 방법



문헌고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통계자료 고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자료를
통한 고찰



도내 현황 조사

경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등록기관 전화 인터뷰

타 지역 우수기관 서면 인터뷰

의료기관 간담회(경남 권역별)

장애인 유관기관·장애인 단체·
의료기관 방문 인터뷰(창원)

장애인 유관기관·장애인 단체·
의료기관 간담회(창원)



실천적 개입

도내 의료기관,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자
연계 및 지원 실시

5. 연구 결과 – 경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현황

✓경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현황 ('21년 11월 말 기준)

등록의료기관 **19개소**

· 19개소 모두 의원(대부분 의사 1인 운영)

등록주치의 **20명**

등록장애인 **11명**

의료기관의
실질적 참여와
이용률 저조

등록기관 대비
활성화된 기관
거의 없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파악
위해 **도내 현황 조사 필요**

5. 연구 결과 – 경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표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장애인 수(전국, 경남)

(2021년 11월 30일 기준)

지역	장애 관리별	2018년 (12.31.기준)		2019년 (12.31.기준)		2020년 (12.31.기준)		2021년 (11.30.기준)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전국	전체	391	391	954	682	1,375	637	2,142	884
	일반건강관리	200	200	630	502	986	492	1,651	761
	주장애관리	121	121	187	112	187	27	232	52
	통합관리	70	70	137	68	202	118	259	71
경상남도	전체	2	2	3	1	3	-	11	9
	일반건강관리	1	1	2	1	2	-	6	5
	주장애관리	1	1	1	-	1	-	2	1
	통합관리	-	-	-	-	-	-	3	

5. 연구 결과 – 경남 현황 조사



'21.1.15~1.19.

시범사업 등록기관
전화 인터뷰



'21.2.2~2.8.

시범사업 우수기관
서면 인터뷰



'21.4.10/4.17.

의료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경남 중부권·서부권/동부권)



'21.6.18.~7.13.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방문 인터뷰
(창원)



'21.7.29.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의
료기관
간담회 개최 (창원)

의료기관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

- 시범사업 등록기관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등록 저조, 홍보 부족,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수가 문제 등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크지 않음**
- 일부 등록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수요 확보 및 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방문진료 실시 의향 밝힘**

∴ **의료기관,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간 원활한 상호 교류 → 활성화 가능성 판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하였음**
-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다수 있음**
- **의료기관이 확보되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조를 진행할 의향이 있었음**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 2개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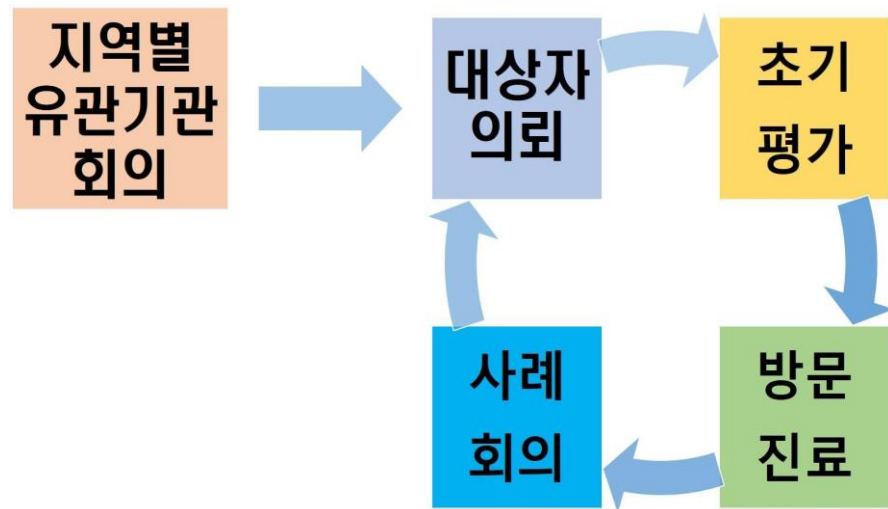
7 - 실천적 개입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 ✓ 지원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천적 개입 시도**
- ✓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창원시에 소재한 의원과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가 본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힘**
- ✓ 의원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되었던 기존의 타 지역 우수사례와는 달리, **지원단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개입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향후 모델로 제시가 가능한지 탐색하고자 함**

- 실천적 개입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 협력체계 구축 모델 추진 과정



-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기관 등록 및 진료 준비
-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건강 주치의 희망 대상자 홍보 및 리스트 제공
- 방문 동선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및 방문 진료계획 수립
- 지속적 환자의뢰, 복지의뢰 및 상호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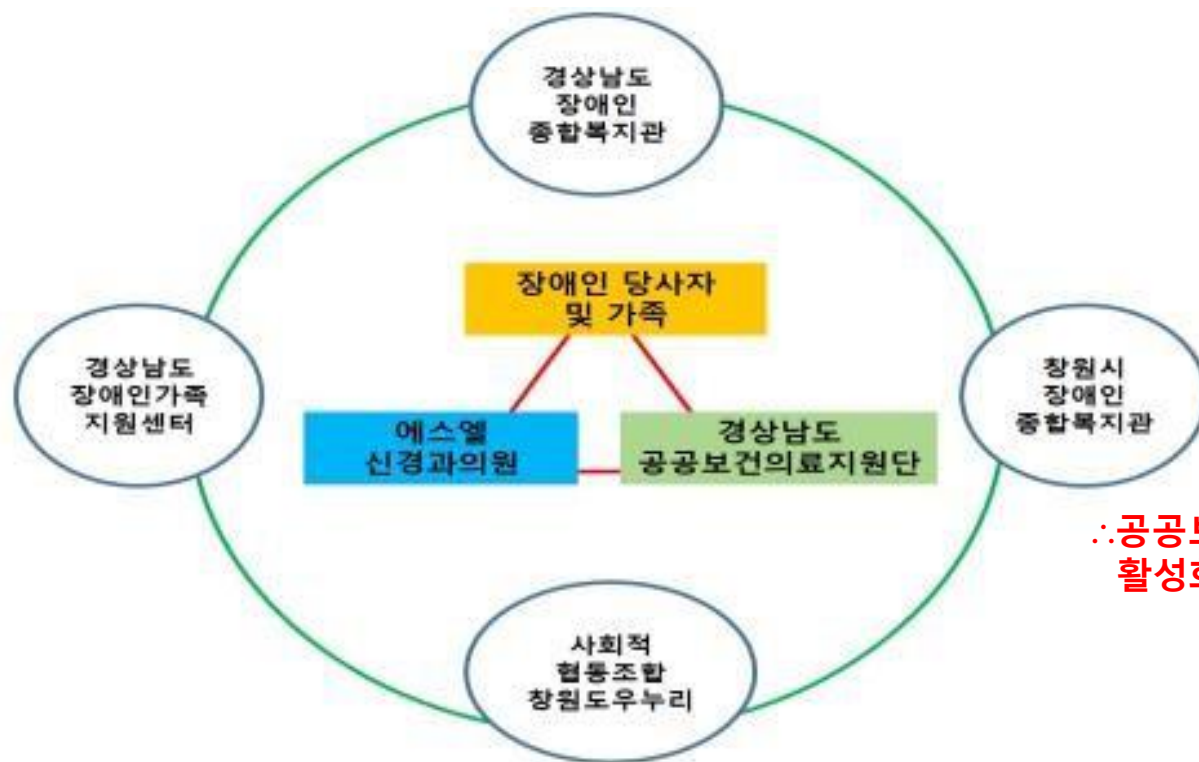
방문 진료 의뢰서					
발신처			전화		
의뢰기관			팩스		
			이메일		
대상자	이름		연령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장애 정도 및 유형	주소				
			치료구분	☐ 건강보험 ☐ 보호 ☐ 차상위 ☐ 차상위장애인 ☐ 일반	
대상자 상태	-주장애- 진단명: 발생시기: 년 발병원인: ☐ 선천성 ☐ 출생시 원인 ☐ 질환 ☐ 사고 ☐ 기타() 합병증: ☐ 경직 ☐ 근골격계 ☐ 호흡기계 ☐ 신경인성발광 ☐ 심부정맥혈중기타() 후유증: ☐ 관절구축 ☐ 육창 ☐ 낙상 ☐ 기타() -과거병력- ☐ 뇌졸중 ☐ 협심증/심근경색 ☐ 심부전 ☐ 만성콩팥병 ☐ 망막병증 ☐ 심혈관질환 ☐ 말초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 기타() -개인요인- 직업(구체적으로): 과거직업(구체적으로): 주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여부: ☐ 유 ☐ 무 -와상상태- ☐ 예 ☐ 아니오 -심리평가- ☐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함 ☐ 기분이 우울함 -약물복용- ☐ 복용약 없음 ☐ 복용약 있음 ☐ 모름				
	의뢰 내용				
본인의 정보(개인정보, 진단명, 질환, 포괄적 의학평가 결과 등)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성명(서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서명)					

20 년 월 일 작 성 자 :

5. 연구 결과

- 실천적 개입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 의창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사례회의



- '21.10.27.
- 방문진료 환자사례 발표(4case)
- 의료진과 의뢰기관 간 의견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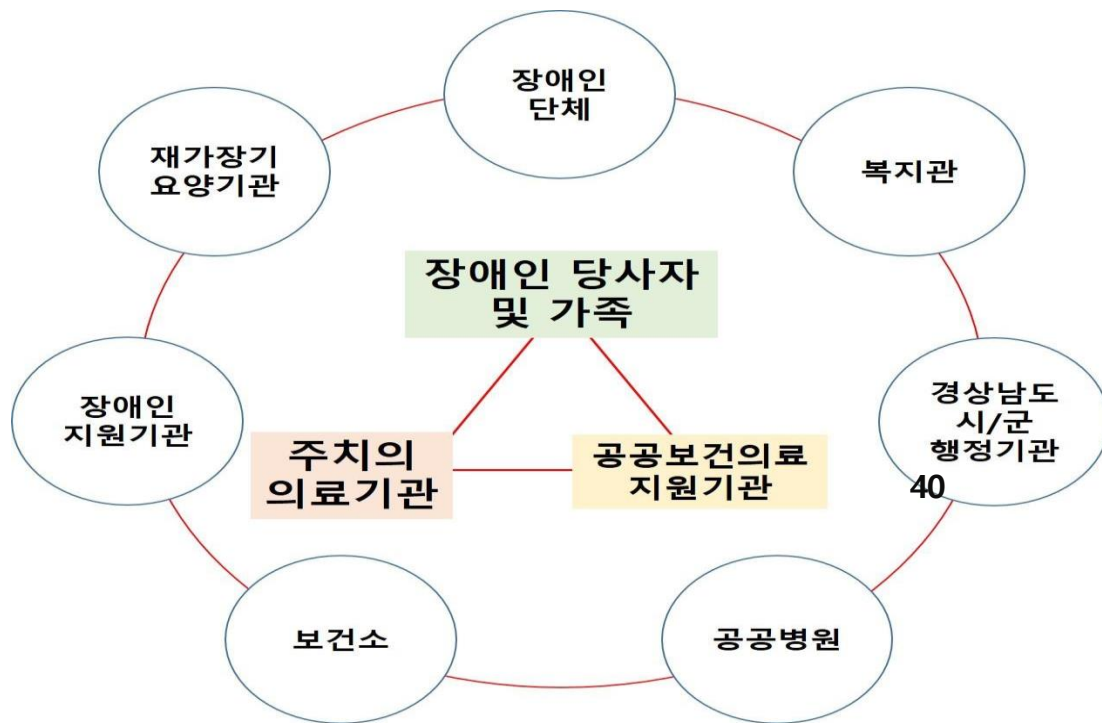
등록장애인의 수 ↑
장애인의 만족도 ↑

∴ 공공보건의료지원기관 주도의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 확인

5. 연구 결과

– 실천적 개입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 공공보건의료지원기관 주도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모델 제안



6. 정책적 제언

✓ 경상남도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강화 필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경상남도 담당자 및 업무 지정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도비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범위 확대

공공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의료 강화

6. 정책적 제언

✓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정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 근거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사례관리
 2. 장애인 건강 주치의와의 연계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동과 연관된 보건과 복지 연계
 4. 장애인 방문간호
 5.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체육시설,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6. 장애인 생활체육 및 운동 활성화
 7. 그 밖에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 ②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의사소통 지원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조사

장애인건강정보 관련 검색사이트 및 국내외 비교 : 코로나19 한정

1. “장애인 코로나” 검색어 적용

1) 구글

- 자체 제작한 정보 사이트가 없음
- 개요, 치료, 예방 등 간략하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중
- 검색 상위에 정보 관련 사이트(국가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 없음

Google 장애인 코로나

전체 이미지 뉴스 지도 동영상 더보기 도구

검색결과 약 13,900,000개 (0.38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 개요 통계 증상 검사 치료 예방

증상

코로나19 감염 시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감염자가 경증에서 중증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입원 없이 회복합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열
- 기침
- 피로감
- 이각 또는 후각 상실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인후통
- 두통
- 혼란
- 설사
- 피부 발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변색
- 눈 충혈 또는 염종

심각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 곤란 또는 흉가슴
- 언어 또는 운동 장애, 착한 증상
- 가슴 통증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사를 보러 가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취하세요.

다른 건강상 불만이 없는 경우 환자는 지역에서 증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 및 지역 정보 보기 >

확진자 지도(지난 14일)

출처: 원자력고도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통계청가수: 195,090 (7월 10일)

확진자 개요

출처: COVID-19 Data Center, COVID-19 Data 제공 입자지도: 1월 10일

2) 다음

- 백과사전, 통합웹, 브런치, 사이트, 뉴스, 동영상 검색결과 제시
- 검색 상위에 정보 관련 사이트(국가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 없음



장애인 코로나

로그인

통합검색 백과사전 통합웹 브런치 이미지 사이트 뉴스 동영상 더보기 기간전체

관련 장애인 코로나 검사 발달장애인 코로나 코로나 중증 코로나 장애인 지원 장애인 코로나 지원금

백과사전

코로나19 범유행이 장애인에게 끼친 영향

속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대책을 곧잘 따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장애인도 코로나19 유행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와 더불어 기존 질환에 따른 위협성이 더 클 뿐만...

위키백과

백과사전 더보기 >

통합웹

중증장애인 코로나 아무런 대처 없는 정부

각각 영등포와 구로에 있다. 전화를 해봤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 구로에 있는 자립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한탄만 하고 있었다. 코로나가 걸린 장애인 자택에 방문해 일할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대한민국 수...

A 에이플뉴스 | 웹문서 | 2022.03.17

광고



독일 알냈네... 들고 다니는 에어컨이라니
위티샵

분야별 검색어

07.11. 17:40

예능tv	콘서트	상영중영화
1 도포자학 휘날리며	6 몽저야 잔다2	
2 물심골즈 시즌 3	7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 미운 우리 새끼	8 나만 알고 따라와, 도시어...	
4 오운영 리포트 - 결혼 지속	9 헌닝맨	
5 놀면 뭐하니?	10 뽕뽕 지구오락실	

3) 네이버

- VIEW, 뉴스,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순으로 검색결과 제시
- 검색 상위에 정보 관련 사이트(국가 혹은 공신력있는 기관) 없음
- 다만 오른쪽 창에 코로나19 일반정보 제시

N 장애인 코로나

통합 VIEW 이미지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뉴스 여학사전 지도 ...

[www.mohw.go.kr - react](#)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 발표 | 힘...

-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 발표

2021.06.24.

VIEW

전체 블로그 카페

[더인디고 | 다양성과 자이를 나누는 인터넷뉴스](#) 2022.05.17.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 23배는 피해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소상...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1월까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3394명이다. 장애...

#추경 #추가경정예산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근육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의료 포 총체적 난국'... 최중증 근육장애인 전담병원(요...

[복지 아는게 힘](#) 2022.04.09.

중증장애인 코로나 지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까지 지내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반 강제 퇴거 하였습니다. 지낼곳이 없어 현재 모텔에
서 생활중이고 동사무소가서 아직 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된 이후 처음으로 가족 곁으로 다시 돌아오...

**코로나19**
확진현황 및 백신접종 정보 >

**신속항원검사**
내 주변 검사기관 찾기 >

**코로나19 팩트체크**
코로나백신 결과 보기 >

**잔여백신예약**
내 주변 잔여백신 찾기 >

2. Covid 19 외국어 검색(google)

- 미국 검색어 : covid 19 usa disabled

- 미국 CDC의 장애인 코로나 대응 페이지가 가장 먼저 제시됨

<https://www.cdc.gov/ncbddd/humandevelopment> ▼

People with Disabilities | COVID-19 - CDC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ho support them can take steps to prevent illness and stay health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아래로 hhs.gov / aaht.us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애인 코로나 대응 페이지 노출

- 영국 검색어 : covid 19 uk disabled

<https://www.disabilityrightsuk.org/coronavirus> ▼

Coronavirus - Disability Rights UK

We are well aware that Coronavirus (**COVID-19**) is continuing to cause great uncertainty and stress ... Specific Coronavirus guidance for **Disabled** people.

- 잘 정리된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 링크가 상위에 검색

1



접수해요.

2



예진표



작성해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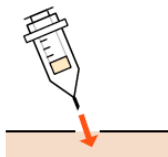
기다려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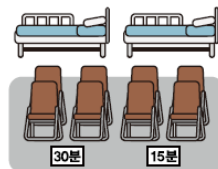
예진해요.

5



주사 맞아요(접종해요).

6



관찰실에서



기다려요.

출장명	장애인 권익옹호협의체 사례회의 참석
출장인	김영수, 신남경
참석자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화 팀장, 이정태 사무국장,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동욱 팀장, 경남장애인권포럼 남정우 이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일 시	2021.7.21.
장 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내 용	- 논의 안건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배부 및 활용에 대한 방안 -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협의체에 의뢰(첫 의뢰는 남정우 이사) - 현재 안산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AAC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 문진을 돕고 있음 - 실제 장애인 이용건수는 많지 않으나, 외국인 안내에 더 도움이 됨, 일부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됨 -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에서 협조공문을 내려 안산장복과 안산시보건소가 함께 추진함 - 창원시 보건소, 감염병지원단 문의시 일이 바빠 신경쓰기 어렵다,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보류 중 - 논의결과 •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 / 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협조 공문 요청 하기로 함. AAC 정보지 배포까지의 역할. 어느부서 관할인지 예산할당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 • 창원/마산/진해 장애인복지관 : AAC가 잘 게시되어 있는지, 잘 안된다면 게시 및 교육을 하고 활용에 대해 해당 선별진료소(마산4, 창원4, 진해3곳)를 모니터링 하기로 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장애인, 외국인, 노인 등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수화 사용이 어려움이 있는지, 특히 의사소통 도움판이 필요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만들기로 함. 일주일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가능하면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도움 사업이 경남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연론에 제보 • 향후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대형병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하고, 병원/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도움도구를 확대 배포하는 것을 사업의 방향으로 할 것을 제의 ※ 참고사항 • AAC 배포를 장애인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것이라고 봐야 함. 외국인, 글을 모르는 노인, 어린이 등 AAC가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 말고도 많음. 설명하는 의료노동자의 입장에서 의사전달이 더 쉽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고 피로도가 줄어 들 수 있음



의사소통 지원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조사(2021)

의사소통 지원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조사

2021. 08.

작성자 : 김찬기

1 목적

2021년 5월 3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2판)·(이하 지원판)을 배포하여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 환자, 이주민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판은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예진실과 접종실 등에 부착하여 의료진과 당사자가 그림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원판 활용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상남도 관내 기관 중에서 지원판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사례 조사를 통해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 환자, 이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원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방법

장애인, 치매 노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14개 유관기관 담당자와 유선 면담을 수행하여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면담이 가능한 당사자를 소개받았다. 당사자 6인과 대면하거나 유선,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의사소통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었나요?
- 활동지원사 등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4 결론

장애인 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였고, 활동지원사에게 의사소통을 의존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중의 설명 부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의료진은 장애인을 비인격적 방식으로 대하거나 활동지원사와만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주민은 개인적인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통역 지원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설명과 안내를 듣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의료진의 권위적인 태도는 이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불만의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이하 AAC)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AAC 활용을 확대했을 때 환자 결과가 좋아질 수 있음이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¹⁾, 한국 의료기관에서 AAC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본 사례조사는 특히 검사나 처치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AAC 활용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의사소통 부담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성 있는 이주민 통역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국제의료센터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는 이주민의 보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그나마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전면 중단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이 가진 경우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할 책임을 고려하면 이주민 통역 서비스는 의료 관행이 아닌 공공사업의 맥락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 통역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에도 이주민이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적 기관에서 전화 통역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언어의 범위를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기 초조사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기초조사

-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



Gyeongnam Province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과 의료인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 연구(사업)과제명

- 경상남도 의료안전망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장애인)
- 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험과 의료인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연구(사업) 목적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인과 장애인 환자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각 주체간의 차이에 대해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사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1월 ~ 12월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시지역 / 군지역 (행정구역 시, 군)
- 내용적 범위
-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분석
- 의료인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석
-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연구(사업)방법

- 연구대상
-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성별을 고르게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경상남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료기관 형태, 진료과목, 성별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연구방법
-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의 체계적 고찰
- 장애인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적 조사(심층면담)를 수행
- 심층면담 자료분석 : 자료분석과 연구결과 타당성 확립을 위한 연구방법 사용

□ 주요 연구(사업)내용

- 의료인과 장애인 환자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체계의 발전적 대안 제시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장애인과 의료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 마련 (근거자료로 활용)
- 장애인 및 의료진용 의사소통 지원 책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판](#)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
- 장애인이 의료이용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보장 기대
-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 도모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한 창원 모임

□ 일시 : 2021.12.30.(목) 오후 2시

□ 장소 :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의실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기초조사

-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

❶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경상남도는 장애인 인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광범위하게 의료취약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건강 관련 수요가 높고 의료이용 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의료이용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탐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❷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의료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은 4개 영역, 9개의 상위 범주, 21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 영역은 '물리적 장벽', '의사소통 문제', '정보 접근성 문제', '경제적 문제'로 구성된다.

장애인이 의료이용 시 겪는 어려움으로 물리적 장벽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경남 내 장애인 진료와 대응이 가능한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선택 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거나 지역 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문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부족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행인에게 설명하거나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판단하여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형병원을 권유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입원 및 상담을 거부하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접근성 문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종합병원급 이상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의료기관의 예약 방법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원 전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로는 장애인만 아니라 2차적인 질병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으며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 시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있으며, 민간병원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❸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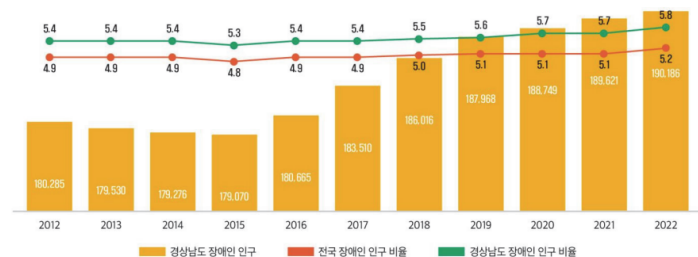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경남 어디에 살더라도 의료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을 분리해서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 전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장애인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업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를 제안한다.

<표 3> 경상남도 등록장애인 인구수(2022)

2022.12.31.기준		
행정구역 (시군구별)	장애인 인구(명)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전국	2,652,860	5.2
경상남도	190,186	5.8
창원권	창원시	50,648
	의령군	2,899
	함안군	5,054
	창녕군	5,465
진주권	진주시	18,182
	사천시	7,373
	남해군	4,232
	하동군	4,398
통영권	산청군	3,507
	통영시	7,605
	거제시	11,381
	고성군	4,695
김해권	김해시	25,219
	밀양시	8,977
거창권	양산시	17,024
	함양군	3,766
	거창군	5,036
	합천군	4,725

출처: 보건복지부(2022.12) 「장애인 등록 현황」, 행정안전부(2022.12)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1> 경상남도 장애인 인구수 및 인구비율 추이(2012-2022)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표 6> 경상남도 장애유형별 인구수(2022)

2022.12.31.기준				
장애유형			총 인구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원(명)	비율(%)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88,834	46.7
		뇌병변장애	17,247	9.1
		시각장애	16,937	8.9
		청각장애	27,820	14.6
		언어장애	1,577	0.8
		안면장애	201	0.1
	내부기관의 장애	소계	152,616	80.2
		신장장애	7,011	3.7
		심장장애	276	0.2
		간장애	916	0.5
		호흡기장애	794	0.4
		장루·요루장애	1,093	0.6
		뇌전증장애	440	0.2
		소계	100,90	5.6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16,409	8.6
		자폐성장애	2,598	1.4
		소계	19,007	10.0
	정신장애	정신장애	8,033	4.2
합계			190,186	100.0

출처: 보건복지부(2022.12.) 「장애인 등록 현황」

1)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2021년 기준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5.7%로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7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7). 또한, 도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5.7%로 전국 평균 66.7%보다도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중진료권 중에서는 통영권과 김해권을 제외한 3개 진료권은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거창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2021)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수검인원(명)	대상인원(명)	수검률(%)	수검인원(명)	대상인원(명)	수검률(%)
전국	671,753	1,016,578	66.1	16,280,961	21,819,799	74.6
경남	48,353	73,638	65.7	1,063,440	1,414,118	75.2
창원권	16,632	25,360	65.6	391,948	518,664	75.6
진주권	9,137	14,207	64.3	177,071	239,934	73.8
통영권	6,376	9,373	68.0	133,670	175,248	76.3
김해권	13,077	19,558	66.9	320,767	423,520	75.7
거창권	3,131	5,140	60.9	39,984	56,752	70.5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외(2022). 2022년 공공의료 INSIGHT 2호.

<표 8> 경상남도 장애인 고혈압 치료율(2021)

구분	외래이용수(명)	유병추정수(명)	치료율(%)
전국	725,754	1,151,569	63.0
경남	48,265	83,101	58.1
창원권	15,168	27,869	54.4
진주권	10,134	16,775	60.4
통영권	6,537	10,331	63.3
김해권	11,917	21,998	54.2
거창권	4,509	6,128	73.6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외(2022). 2022년 공공의료 INSIGHT 2호.

<표 9> 경상남도 장애인 당뇨 치료율(2021)

구분	외래이용수(명)	유병추정수(명)	치료율(%)
전국	460,742	537,726	85.7
경남	30,093	38,804	77.6
창원권	9,881	13,014	75.9
진주권	6,238	7,833	79.6
통영권	3,721	4,824	77.1
김해권	7,972	10,272	77.6
거창권	2,281	2,861	79.7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외(2022). 2022년 공공의료 INSIGHT 2호.

- 비장애인 고혈압 치료율 66.9%, 당뇨 치료율 62.4%

<표 10> 경상남도 장애인 다빈도질환 20순위(2020)

순위	질환코드	질환명
1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2	M54	등통증
3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4	J20	급성 기관지염
5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6	M17	무릎관절증
7	E11	2형 당뇨병
8	K21	위-식도역류병
9	M48	기타 척추병증
10	L23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11	M75	어깨병변
12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13	J30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14	K0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15	K02	치아우식
16	B35	백선증
17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18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19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0	H10	결막염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

<표 12>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20)

구분	경상남도				전국			
	장애인 이용률 (%)	1인당 연평균 이용 일수 (일)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원)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 (원)	장애인 이용률 (%)	1인당 연평균 이용 일수 (일)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원)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 (원)
장애인 의료 이용 (입원)	30.9	28.7	11,990,368	1,839,151	27.3	21.5	11,799,049	1,776,566
장애인 의료 이용 (외래)	92.7	32.8	2,167,747	369,741	93.7	33.4	2,315,913	388,173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

<표 1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및 재활 관련 사업 기관(2023)

2023.8.8.기준

구분	개소
정부 사업 4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
장애인회 건강검진기관	5(운영 1, 준비 4)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기관	32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기관	3
재활환자 채택의료 시범기관	1
권역재활병원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건립 추진 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
경상남도 자체 사업 1개소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산부인과	1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2023).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17〉 연구 참여자 배경

구분	조사방법	참여자	성별	장애유형	직급	소속	비고
1	심층면담	A	남	지체	대표자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당사자
2	심층면담	B	남	지체	대표자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당사자
3	그룹면담	C1	남	지체	대표자	장애인 유관기관	지체장애인 당사자
4		C2	남	정신	대표자	장애인 유관기관	정신장애인 당사자
5	그룹면담	D1	여	언어·청각	대표자	장애인 단체	청각장애인 당사자 당일 수어통역 면담
6		D2	남		중간관리자	장애인 유관기관	-
7	그룹면담	E1	남	신장	대표자	장애인 단체	신장장애인 당사자
8		E2	여		중간관리자	장애인 단체	-
9	심층면담	F	남	시각	대표자	장애인 단체	시각장애인 당사자
10	그룹면담	G1	여	발달	대표자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중간관리자 겸임
11		G2	여		중간관리자	장애인 유관기관	-

〈표 18〉 면담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 시 고려사항 - 장애유형별 의료이용에서 겪는 어려움 - 의료인의 태도 - 의사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대, 전문과목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차이 여부 -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차이 여부
경상남도 장애인의 의료이용 관련 정책적 개선방안	- 의료인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방안 -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관련 정책적 개선방안

결과

가) 물리적 장벽

- 장애인이 의료이용 시 겪는 물리적 어려움으로 ‘장애인 진료 및 대응 가능한 의료자원의 부족’, ‘이동의 어려움’, ‘긴 대기시간’,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장비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0> 장애인 의료이용 문제점: 물리적 장벽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물리적 장벽	장애인 진료 및 대응 가능한 의료자원 부족	의료기관 편의시설 미비
		전문의료기관 부족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부족
	이동의 어려움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지리적 위치 제약
		의료기관 내 이동의 어려움
	긴 대기시간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진료의 어려움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장비 부족	의료장비의 불편함

<표 21> 장애인 의료이용 문제점: 의사소통 문제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사소통 문제	의료인의 장애 인식 및 배려 부족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의 고압적인 태도
		장애인 진료 거부
	진료 설명 이해의 어려움	전문용어 이해의 어려움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자기 의사 표현 제한

<표 22> 장애인 의료이용 문제점: 정보 접근성 문제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정보 접근성 문제	의료정보 접근의 어려움	의료기관 정보 부족
		의료정보 웹접근성 부족
		의료정보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부재

<표 23> 장애인 의료이용 문제점 : 경제적 문제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경제적 문제	높은 의료비 부담	장애와 2차 질환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 시 높은 의료비 부담
		민간병원의 높은 의료비 부담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진료 가능한 전문인력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장비 부족
		코로나19 시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의료공백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일방적인 도움
	언어·청각장애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병원 내 의료전문 수어통역사의 필요성
		응급상황 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의 부재로 인한 진료 지연
		의료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언어·청각장애인 당사자 배제
		한정된 수어통역서비스 이용 시간으로 인한 진료의 어려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 부재 시 입원의 어려움
		영상전화기를 활용한 연계의 필요성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의 수어통역 인력 활용 제한
		수어통역사 유무에 따른 병원 선택
	시각장애	의료이용 시 보조인력 필요
		의료이용 시 주된 동선을 고려한 통합적인 처원의 편의시설 설계의 필요성
		당사자를 배제한 의료적 설명
	신장장애	대기시간 최소화 필요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
		큰 규모의 병원이 편리하나 수용인원의 한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배제 및 병원 내 보조인력 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특성
		코로나19 시 식사, 간식 지원 및 투석 중단의 어려움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 동반
		장거리 투석치료의 어려움

구분		내용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	수용, 격리 위주의 정신장애인 정책
		약의 강도와 비용 문제로 공공병원 선호
		정신 약물의 부작용과 대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진의 차별적인 태도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어려움
	발달장애	비만, 만성질환 등 2차 질환 예방의 필요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우선 진료의 필요성
		장애특성 및 진료 과정을 고려한 병원 내 보조인력 배치의 필요성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치과 선택 및 이용의 어려움
		전문의료기관 부족으로 장거리 진료의 어려움
후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	병원 지원인력의 발달장애인 이해 및 대응 부족	
	발달장애인 맞춤형 병원 확대 필요	
기타	장애의 고착 및 수용의 문제로 의료이용이 더 많은 후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	
	코로나19 시 호흡기장애인의 의료이용 어려움	
	장루·요루장애인의 어려움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정신적 장애의 약물 과다처방으로 인한 약물복용 및 관리의 어려움	
	장애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 필요	

연구 정책 제안

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1) 장애인화 의료기관 확대 필요

- 가)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관 확대
- 나) 장애인 맞춤형 접수·수납창구 확대 및 병원예약시스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다)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 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 마) 투석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2)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가) 공공병원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강화
- 나)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가능한 교육과정 필요
- 다) 장애인 보조인력 확충 강화

3) 이동 편의 제공 대상 확대

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활성화

- 1)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2) 병원용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개발 및 보급 확대

다. 장애인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업 지원 강화

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강화

마. 장애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

○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 함.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 종 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나,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공 공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제1차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안건8)으로도 상정된 바 있음. 당시 안건은 공공병원 의 료인 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함. 직장 내 장애 인 인식 개선 교육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직장 내 고용된 장애 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에는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애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 에 대해 고려할 수 있으며, 실효적인 교육을 위해 도내 장애 당사자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장애인건강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주로 장애인을 담당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진료 시 의사소통 및 건강권에 관 한 내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교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 증진은 긍정적인 건강성과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 히 존중 되고 이해될 때 건강 및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건 강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김석진, 정진성, 2018). 또한, 장애인 환자의 문제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능력을 알 려주고 치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료인의 지식과 태도, 역 량의 부족은 장애인의 의료 불균형과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 는 한 요인임(김금순, 박연환, 이범석, 김 정이, 2010; 우경숙 외, 2009; 이소영, 2013; Lynch, Last, Dodd, Stancila, & Linehan, 2019).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하여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동행한 보호자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당사자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위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됨(이숙향 외, 2019).

○ 더 나아가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 야 할 것임(우경숙 외, 2009; Tervo, Azuma, Palmer & Redinius, 2002). 따라서 의료인 또는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 애 이 해 및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임.

[참고] 장애인 건강과 선거

제8회 지방선거 경상남도 장애인 공약 제안서

(5대 영역 14개 제안)

2022. 5.

경남지방선거장애인연대

참여단체
(23개)

사)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경상남도협회
사)한국장애인미래경남협회
사)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한국교통장애인경남협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남협회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경남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경상남도협회
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남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남지회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사)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경상남도협회
사)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남협회
사)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경남협회
사)워드장애인인권연대
사)한우리인성회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Ⅱ. 장애인 건강권 보장 확대

제안 3. 장애인 건강권 강화	8
제안 4.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부권 설치	10
제안 5. 장애여성 특화 산부인과 지정 및 운영 지원	11
제안 6. 신장장애인 인공신장실 및 야간투석병원 확대	12



경상남도 지자체 선거 공약 제안 ‘장애인 건강’

- 0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강화
- 02 찾아가는 건강버스 추진
- 03 장애인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
- 04 의료진 장애인 인식 교육 강화

→ 장애인 연대 요청으로 지자체 선거공약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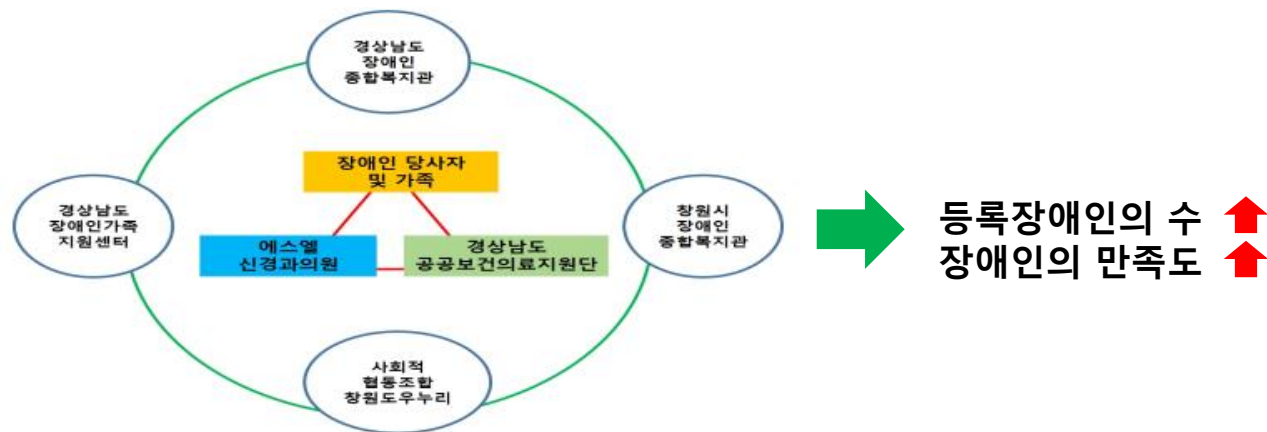
0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강화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록현황 ('21년 11월 말 기준)

- 등록의료기관 19개소, 등록주치의 20명, 등록장애인 11명

➡ 의료기관의 실질적 참여와 장애인 이용률 저조

○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그림 3>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모델

0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강화

제안1.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안2. 경상남도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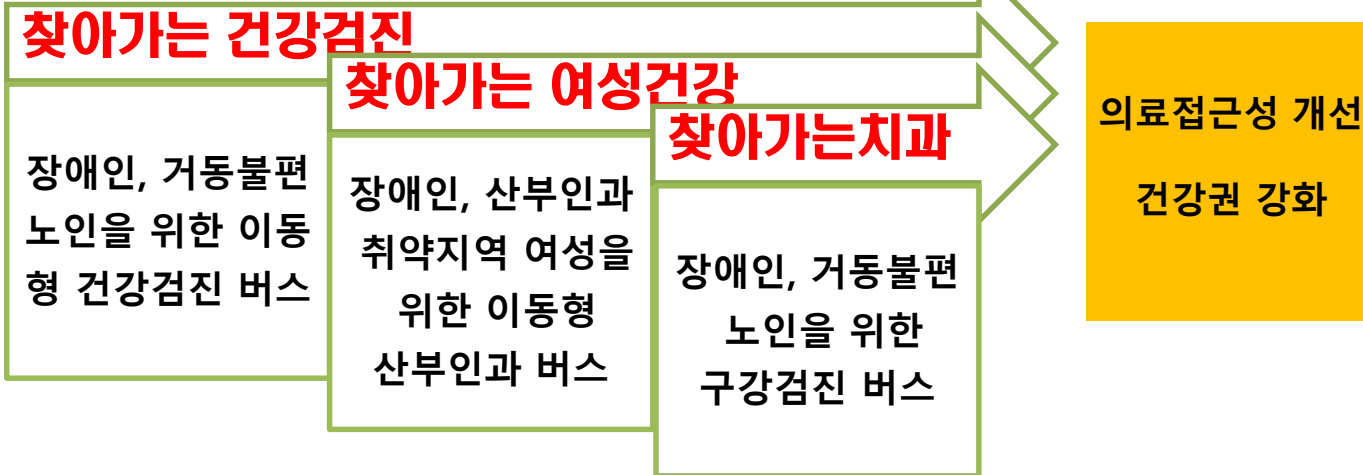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경상남도 담당과 신설/지정 및 업무지정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도비” 인센티브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범위 확대

02 찾아가는 건강버스 추진

제안 : 찾아가는 건강버스

- ✓ 이동형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버스 추진 (저상버스 이상적)
-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서비스 강화 필요
- ✓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도의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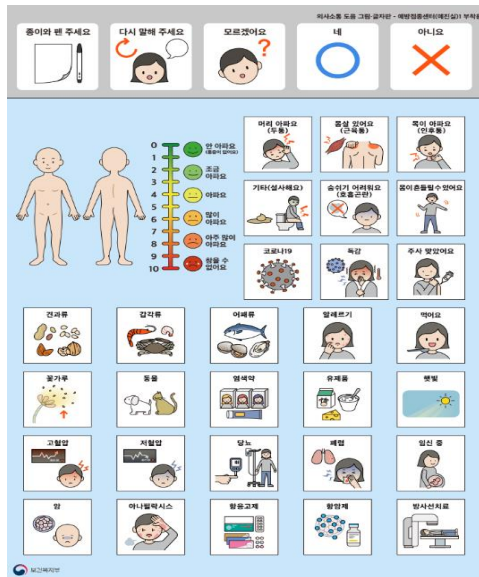
★ 공공병원 위탁운영, 도비지원의 형태로 운영



03 장애인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 건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의사소통 지원판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



<그림 3>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용

제안1.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판 의료기관 보급 및 확대

- 도내 보건소, 의료기관으로 의사소통 지원판 보급 확대 및 제도화

제안2. 도내 장애인 의료기관 정보플랫폼 마련

- 경상남도 도청 내 장애인 건강정보 담당관 신설
- 장애인이 체감하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홈페이지 정보제공 개선
 - 장애인 진료 가능한 병원, 어떤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정보플랫폼 필요

04 의료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성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2)에서 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의료인력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2022년 1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안사항
↳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필요**

제안: 의료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도내 장애당사자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공공병원 의료진부터 실효적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경상남도 도청, 각 시군 공무원, 민간병원 의료진으로 교육 확대

5. 향후 과제

• 장애인 건강을 주제로 한 경남지역 모임 재활성화

• 후속 연구 : 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험과 의료인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 선거 공간에서의 적극 활동

- 공약 모니터링 포함

•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근거의 필요성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1. 배경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건립되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임.
- 중부권(대전충남 어린이 재활병원)에 이은 전국 두 번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며,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3개과 전문 진료과가 운영될 것이며, 근골격 초음파실, 임상병리실 등 5개 검사실 및 물리치료, 작업치료, 로봇 치료 등의 시설을 운영할 예정임.
- 설립을 위한 재정은 428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경상대병원이 100억원, 경남도가 98억원, 창원시가 30억원을 부담하고 넥슨재단이 100억원을 기부하여 부담.

2. 운영 지원의 필요성

- 어린이 재활치료는 장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책정 금액)가 낮아 병원이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
-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회복 기간이 길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재활에는 재활의학과 의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소아 재활은 일반 환자와 다르게 치료실, 감각 통합실, 운동 치료 공간 등 특수한 시설이 필요함.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가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음.
- 어린이 재활병원은 성인 병원보다 이용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환자가 보호자와 같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짐. 다수의 환자가족이 병원 근처로 이주하기도 하지만,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 >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음

3. 유사 법률

- 공공 재활병원의 경우 앞서 제시한 운영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병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조례 2023. 6. 9.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9. 24.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3. 1.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9. 30.

제주특별자치도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3.10.

- 관련 조례에는 "재정지원", "운영비 보조"라는 문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 대전충남권역의 경우 건강권역과 동일한 취지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선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야 "시장"이라 한다.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어린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전충남권 조례의 경우 대전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남권 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창원시에 위치하지만, 창원시 뿐 아니라 경남권 전체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 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자치법규)안 작성 및 제안, 해당위원회(보건의료의 경우 문화복지)
- ② 해당위원회 도의원이 입법지원 의뢰서, 조례안을 도의회 담당관에게 제출
- ③ 조례안 검토보고서 작성 :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타시도 운용사례, 관련 법령
- ④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주도 도민 토론회 개최
- ⑤ 검토보고서 조례안을 10인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 입법제고
- ⑥ 입법제고 후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표결, 통과 시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최종 결정

감사합니다